

## 간호사 국가시험 2만200명 응시

합격자 발표 2월 10일 ... 휴대폰 문자 통보

2017년도 간호사 국가시험(제57회)에 2만200명, 조산사 국가시험(제28회)에 16명이 응시했다. 시험은 1월 20일 시행됐다.

◇간호사 국시 응시율 99.2% = 올해 간호사 국가시험에는 최종 2만362명이 접수했다. 이 중 2만200명이 시험을 치러 99.2% 응시율을 보였다.

국시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제주·전북·강원·경기 등 9개 지역 27개 시험장에서 분산 실시됐다. 간호사 국시 과목은 △1교시-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2교시- 아동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정신간호학 △3교시- 간호관리학, 기본간호학, 보건의약관계법규이다.

시험문항은 모두 295문항이며, 시험시간은 총 270분이다. 배점은 1문항 당 1점이며, 총점은 295점이다.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해야 합격된다.

◇조산사 국시 16명 응시= 조산사 국시는 응시대상자 16명 중 16명이 시험을 봐 응시율 100.0%를 기록했다. 시험은 서울 성동공업고등학교 한 곳에서 실시됐다. 조산사 국시 과목은 △1교시- 조산학(마취학 포함) △2교시- 신생아간호학, 모자보건학(가족계획 포함), 모자보건법이다.

◇대설 속 응원 열기= 전국 9개 지역에 차려진 시험장은 수험생들을 격려하는 열기로 뜨거웠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긁



서울 광장중학교에 마련된 간호사 국가시험장 및 입실 전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있는 모습. 이날 시험장을 방문한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오른쪽)이 김창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과 환담하고 있다.

은 눈발이 날리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험장 진문은 응원 나온 후배 재학생들과 교수들로 북적였다.

후배 재학생들은 학과 점퍼를 맞춰 입고, 합격기원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팻말을 흔들며 선배들을 응원했다. 교수들은 시험장에 들어서는 제자들의 손을 잡아주며 자신감을 북돋워줬다. 따뜻한 차와 손난로, 간식거리 를 건네며 격려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이 날 서울 광장중학교 시험본부를 방문했다. 김창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과 환담하고 함께 시험장을 둘러보며 학생들이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간호협회에서 운영하는 'KNA 대학생 활동가'들도 공식 SNS와 개인 SNS를 통해 합격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남기며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합격자 발표= 간호사 및 조산사 국시 합격자 발표는 2월 10일로 예정돼 있다. 국시원 홈페이지 이지(kuksiwon.or.kr) 와 ARS(060-700-2353)를 통해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접수 시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한 응시자에게는 문자메시지(SMS)로 합격여부가 통보된다.

김숙현 기자 shkim@koreanurse.or.kr

※ 자세한 사항은 KNA 에듀센터 홈페이지(edu.koreanurse.or.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ECD 보건장관회의 선언문 채택

됐다. 회의는 1월 17일 파리에서 열렸다.

선언문에는 의료서비스 전달에

'OECD 보건장관회의'에서 미래의 보건개혁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장관 선언문이 채택

되어 환자안전을 강화하면서 비효율과 낭비를 줄이고, 환자 개개인의 니즈와 선호를 반영하며, 혁신 의약품과 비데이터 등 기술혁신의 효과적인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선언문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2면에 계속)

주제진 기자 hijoo@

## 2주기 요양병원 평가인증 시작

### 환자안전 평가항목 대폭 강화

요양병원에 대한 2주기(2017~2020년) 평가인증이 시작됐다.

지난해 만료된 1주기(2013~2016년) 평가인증에 이어 2주기 평가인증이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요양 병원에 대해 의무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요양병원의 양적 팽창으로 인한 요양서비스 질 저하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2주기 평가인증 기준은 3개 영역, 11개 장, 33개 항목, 54개 기준, 241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됐다. 1주기 기준의 틀을 유지하면서 환자안전 및 서비스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우선 인증기준 전체 조사항목 수가 의료서비스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존 205개에서 241개로 확대됐다.

환자안전 및 안전보고체계, 전 부서의 낙상예방활동 수행,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담당인력 배치 등 환자안전에 대한 항목이 대폭 강화됐다.

1주기 시범조사항목 25개가 정 규항목으로 전환됐으며, 필수항목이 23개에서 28개로 늘었다. '구조'에 대한 조사항목을 줄이고, '과정 및 성과'를 평가하는 조사항목을 확대했다.

또한 조사항목별 조사관정기준

이 상향됐다.

항목별 '중' 판정기준의 점수가 30% 이상 80% 미만에서 60% 이상 80% 미만으로, '하' 판정기준은 3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높아졌다. '상' 판정기준은 80% 이상으로 동일하다.

인증등급 판정기준도 강화됐다. 영역별 총점률을 보면 것에서 하위 영역의 각 조건을 충족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각 장별로 7점 이상, 각 기준별로 5점 이상, 조사항목 전체 평균 8점 이상이 돼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2주기 역시 의무인증인 만큼 모든 요양병원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전체 요양병원 1500여곳을 대상으로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요양병원은 인증 유효기간의 공백을 고려해 만료 3~6개월 전에 신청하면 된다.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요양병 원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요양병원에 가산 벌금 등 폐널티가 적용되며,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인증을 획득한 요양병원에는 인증서와 마크가 교부되며, 이를 흥 보에 활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평 가인증원 홈페이지에 인증 의료기관 명단이 공개된다.

김숙현 기자 shkim@

## 「신규 온라인 보수교육과정 탑재」 안내

대한간호협회는 신규 온라인 보수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탑재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강의명         | 이수 인정시간 |
|-------------|---------|
| 노인요양시설 간호실무 | 8시간     |
| 통증 관리       | 8시간     |
| 호스피스간호      | 8시간     |
| 감염 관리       | 8시간     |

\* 자세한 사항은 KNA 에듀센터 홈페이지(edu.koreanurse.or.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호역사박물관에서 보존할

## 간호사 여러분의 자료를 수집합니다

사진 · 문서 · 도서 · 간호물품 등 기증 받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역사뿌리찾기사업을 2008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간호역사박물관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간호역사박물관에서 보존하게 될 귀중한 역사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소장하고 계신 다양한 간호 관련 자료와 물품을 대한간호협회로 기증해주시면 소중한 유산으로 보존해 널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집 대상

- 간호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 문서, 도서, 물품
-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각종 기록물 및 증거물
- 간호교육 관련 도서, 자료 및 물품
- 병원 및 지역사회 간호현장에서 사용한 물품
- 시대적 변천사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및 물품
- 독립운동 간호사 관련 자료 및 물품
- 파독간호사, 재미간호사, 재외한인간호사회 자료 및 물품
- 한국전쟁 및 해외파병 관련 자료

### 예시

- 간호사 면허증(1970년 이전)
- 대한간호협회 회원증(1970년 이전)
- 간호사 국시 수험표(1970년 이전)
- 간호사 유니폼, 캡, 신발(1980년 이전)
- 주사기, 청진기, 혈압계 등(1980년 이전)
- 보건진료원 방문가방(구비물품 포함)
- 근대 간호교육 관련 교재(1970년 이전)
- 병원 및 지역사회 간호현장 사진(1990년 이전)
- 한국전쟁 및 해외파병 관련 사진

### 수집 기간 연중

### 기증 절차

-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접수 → 기증 여부 심의 및 결정
- 기증 완료

### 문의

대한간호협회 자료실  
전화: 02)2260-2541  
이메일: shpark@koreanurse.or.kr



대한간호협회